

제419회 국회  
(임시회)

##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2월11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긴급 현안질의

### 상정된 안건

1. 긴급 현안질의 ..... 1

(00시05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긴급 현안질의

○위원장 성일종 방금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늘 저희 모든 위원들이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이 계십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방위원회를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늘 함께해 주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화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반란군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 그래서 제가 잠시 상의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인 용어는 계엄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야 어떤 말을 붙여도 우리가 분이 안 풀리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명령을 수명을 받아서 수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보듬고 또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언어 사용에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예, 그러시지요.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크게 다른 의견은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계엄 동원된 병사에게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질의하시겠습니까?

○추미애 위원 아니아니, 그래서 우리가 아마 대체로 대학에서의 전공은 다 다르겠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사회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다 제대로 배웁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이라는 것도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대사가 있다는 것도.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위원장님이 이 말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 아까 대테러 전개 훈련을 늘 한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칩시다. 여의도에 많은 중요시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민주당사만 있습니까? 국회만 있습니까? 국민의힘당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비판하는 세력을 향해서 반국가세력이라고 했습니다. 국가전복세력, 반국가세력, 패륜집단 또는 공산전체주의 이렇게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시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깨는 것이지요. 국회는 다원주의 가치가 어우러진, 서로 비판이 오고 가는 토론이 있는 그런 민주주의의 현장인 것이고요. 이곳을 침탈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북 도발이라고 늘 얘기하는데 북 도발과 민주당사가 무슨 연관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꾸짖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하 병사들을 핑계 대고 명예를 존중해 달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질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전에.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유념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여러분들이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게 군에 들어가면 쉽게 오염이 됩니까? 정치를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야 떠나서 여러분의 입장을, 병사들의 입장을 살펴 달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달이 일어난 겁니다, 군의 정치 중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어찌해서 민주당이 북 도발을 야기하는 집단입니까? 북 도발을 핑계로 훈련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민주당이야말로 대통령의 호전적인 자세를 늘 질타하고 꾸짖었고 전쟁 반대를 외쳐 왔습시다. 민주당은 여러분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국방비를 올려 주는 데 찬성하고 앞장서 왔습시다.

박안수 사령관, 잘 들으세요.

권영환 대령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계엄과장 나오십시오.

박안수 사령관으로부터 12:3 당일 날 질책을 들은 적 있지요, ‘일머리가 없다’ 그렇게 급하게 뭔가 지시를 받으셨지요? 그게 뭐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질책을 받았다고보다 계엄사 상황실이 구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제대로 빨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머리가 없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계엄사 상황실뿐만 아니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사 상황실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그런 말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추미애 위원 일머리가 없다, 그다음에 질책 말고 상황실을 빨리 만들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상황실을 빨리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황실이 제대로 작동, 그러니까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 검찰 조사를 받은 적 있지요?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위원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떤 질문이 오고 갔습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합참 계엄과와 계엄과장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시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추미애 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합참 계엄과가 이번 상황에서 지원이 되었던 이유는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합참 군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사 상황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원 임무를 받았다고,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받았고, 두 번째는……

○추미애 위원 그때가 몇 시쯤이었어요?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참고인 조사받을 때 말씀이십니까?

○추미애 위원 아니요, 12·3 당일 날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상황실을 꾸리라는 지시를 받은 때가 몇 시였습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고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고 부대에 복귀해서 늘 보고받으셨던 그 작전회의실에 내려가서 그때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지시사항을 수행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때가 몇 시였어요?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그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미애 위원 계엄 해제가 1시 1분에 있었어요. 그로부터 얼마 전입니까? 10시 반에 대통령의 TV 방송 선언이 있었어요. 그 사이입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 그때 소집이 되어서 들어와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면 11시쯤 됐습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시간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몇 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그래서 계엄상황실 구성 준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추미애 위원 어떻게 전파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전파라 함은 누군가에게 전파했냐는 말씀이십니까?

○추미애 위원 예.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제가 직접적으로……

○추미애 위원 명령 하달 또는 이런 것을 얘기하지요, 전파라는 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지구·지역계엄사, 예하부대 말씀하십니까?

○추미애 위원 예.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파한 사항은 없고 저희 과원들도 전파한 것이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리고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상황이 끝났습니까?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이번 비상계엄 상황이 종료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추미애 위원 아니, 참모총장으로부터 들어서 명령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듣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 권영환 그 명령을 받고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 준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각종 우리가 알고 계신 KJCCS라든지 C4I 그리고 전화기, 국가지도통신망 등에 대한 연결을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성일종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차관님, 역사는 똑같은 일이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엄이 정리가 되면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하여 장병들과 초급장교들에 대해서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치유책을 제시해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리고 특전사 여단장님께서 친구 따님이 반란군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 저는 반란 수괴는 있어도 반란군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그 명령을 아무리 군인이라도 수행을 안 해야 됩니다.

이 계엄이라는 말이 명나라 때 정자통(正字通)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계엄은 장차 적이 쳐들어올 때 튼튼히 준비하는 게 계엄입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당하고 옳은 길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것이 군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 보좌관, 2023년도 11월 달까지 방첩사에 근무했지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23년 12월부터 24년 8월까지 방첩사에 근무했습니다.

○안규백 위원 24년 8월까지?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예.

○안규백 위원 지금 제보에 의하면 김철진 보좌관께서 포고령을 작성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포고령 작성한 바 없습니다. 제가 포고령을 처음 본 것은 말씀드렸듯이 장관님께서 봉투에서 꺼내신 포고령을 계엄사령관에게 전달했을 때 그 문서가 무엇인지 결혼질하면서 처음 포고문이라는 글자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위원 본인이 포고문을 작성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에요?

○국방부군사보좌관 김철진 결코 작성한 바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알았습니다.

차관님, 보통 임기제 하면 2년, 1년인데 통상은 임기를 보장해 주잖아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통상 임기제에 진급을 하면 그 임기제는 보장……

○**안규백 위원** 그런데 이보형 전 드론사령관이 작년 10월 달에 가서 금년 4월 말일 날, 5월 1일 자로 새로운 사령관이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신임 드론사령관을 보니까 그다지 영민하지는 않은 것 같네. NCND가 본인이 갖고 있는 최고의 언어 사용 같네, 보니까.

왜 임기를 반도 못 채우고 드론사령관을 바꿨지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장군 인사 관련된 것은……

○**안규백 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엄을 준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인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김용대 지금 현재 드론사령관은 방사청에서 실제 이런 사업들을 전문으로 하던 요원이어서 저희가 보직을 할 때 그 적격자로 판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드론사령부 창단하자마자 5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교체를 했잖아요. 창단을 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서 평가를 해야지 5개월, 6개월 만에 바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리고 방첩사 주요 지휘 계선상에 있는 주요 직위자들이, 처장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방첩사 내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전부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드물잖아요. 저도 처음 봅니다.

말씀해 보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방첩사 실장급, 대령급 보직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체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안규백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안규백 위원** 우리 국방위가 지금 국민을 대표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가담한 군의 혐의를 묻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범죄는 윤석열에 부화뇌동을 해서 군령권을 중단한 극소수의 군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머지 50만 장병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도 피해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차관께서는 장병들과 초급 장교 또 관련 없는 인원들에 대해서 세밀한 심리치료를 좀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안규백 위원** 시간이 30초 남았는데……

정보사령관, 지금 정보사령관의 대답이 좀 시원찮아요. 왜냐하면 HID는 사실 북파공작과 요인 암살을 주 임무로 하고 있는데 이 인원들이 선관위 5명 또 판교 인근에 15명, 약 21명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실제 대기하고 있었던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규백 위원 30여 명입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예.

○안규백 위원 그러면 이 인원들의 미션이 뭡니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임무는 하달되지 않았고 다음 날 임무가 있을 거기 때문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안규백 위원 임무가 하달이 안 되고 대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국방위를 더 오래 했는데 임무 하달이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임무라는 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선관위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지시를 받았고 그다음에 세부 임무는 추후 하달 하겠다고 제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규백 위원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인원들이 거기에 대기한 것 아니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시 지시를 받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지시가 없고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지금까지 밝혀진 1391명의 우리 장병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의해서 또한 내란 주요 종사자 김용현 전 장관의 불법적인 명령 체계 수행을 통해서 내란군으로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용서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장병들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사령부가 채 구성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허영 위원 5명 규모라 그랬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하여튼 그 정도 됩니다.

○허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그 정도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으면 계엄군도 5명 정도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용현 장관이 방금 전에 내란 혐의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진술에 의해서, 진실을 밝히는 노력에 의해서 제대로 진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진팔 계엄부사령관, 11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주관으로 군 지휘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진술 토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허영 위원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허영 위원 언론기사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한 공세적 대응 시나리오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저는 당시에 교육사령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도 없었고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허영 위원 전혀 모르셨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예.

○허영 위원 이승오 작전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허영 위원 계엄사령부에서 작전본부장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합참 소속은 계엄사령부와 지휘 관계가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작전본부장, 18일이 아닌 11월 28일 북한의 서른두 번째 오물풍선 도발이 있었을 때 대응을 위한 상황평가 회의를 진행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대응을 위한 상황평가 회의는 아니었고 현재 오물풍선이 어디서 하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했던 인원들과 대화 나눴습니다.

○허영 위원 이승오 본부장, 언론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김용현 장관이 지휘통제실 가서 그런 공세적 대응 시나리오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허영 위원 그날 상황평가 회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전화 받았습니다.

○허영 위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북한에 오물풍선을 띄웠는데 보고가 늦었다……

○허영 위원 그래서 질타를 받으셨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질타받지 않았습니다.

○허영 위원 보고가 늦었는데 질타를 안 받으셨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보고가 늦었다라고 해서 그 얘기를……

○허영 위원 보고가 늦었으면 당연히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질타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영 위원 그 질타의 수위가 다르겠지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약간 작전……

○허영 위원 경고 사격이나 원점 사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공세적 대응 시나리오를 비화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아닙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전체 상황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가 해서 합참의장께서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합참의장과 통화를 바로 하셨습니다.

○허영 위원 합참의장과 통화 내용은 어떻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허영 위원 그때 많이, 서로 간에 그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런 내용의 언쟁이 있을 법한 어떤 대화는 없었습니다.

○허영 위원 그래서 사실상은 합참의장과 김용현 전 장관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설이 나왔고, 그런 것에서 김용현 장관이 다른 모임에서 합참의장을 ‘재 빼’, ‘개념 없는 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허영 위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된 것이지요, 합참의장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진팔 부사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메인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왜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허영 위원 계엄 시에 합참의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제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허영 위원 합참차장으로서 그런 것도 모릅니까?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저는 전임 2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허영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까.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승찬 위원 총장님, 계엄법 2조 2항 읽어 보셨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비상계엄 2조 2항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읽어 보셨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부승찬 위원 정말 촌촌하지요?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예,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촌촌하지요? 그러면 여기에 뭐 하나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판단이 안 됩니다.

○부승찬 위원 예?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판단이 안 됩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해당되는 게 있냐고요. 제가 읽어드린 것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나요? 요건이 되는 게 있냐고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합니까? 교란되어 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승찬 위원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습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그리고 전시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사변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닙니다.

○부승찬 위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아니었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러면 비상계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적과 교전 상태를 초래할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정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국군심리전단장님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론사령관님 나와 주십시오. 같이 나와 주십시오.

○국군심리전단장 양현승 심리전단장입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드론, 같이 계십시오. 똑같은 답을 들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답을. 가만 계십시오.

작전본부장님, 제가 국정감사 때부터 ‘합참의 직무유기다’라고 한 얘기 뭔지 알고 계시지요? 합참의장과 언쟁도 있었는데.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대북전단 P-518 지역에 대해서는 합참이……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부승찬 위원 위임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렇습니다.

○부승찬 위원 안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저희가 그 민간단체 풍선을 보게 되면 신속하게 지역에 있는 경찰에 전달을 했습니다.

○부승찬 위원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지역 책임부대에서 경찰에 전달해 줬습니다.

○부승찬 위원 안 했다니깐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 횡수도 저희들이……

○부승찬 위원 안 했다니깐요.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어요, 질의도 했고.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때 경찰청에서 답변한 것에 연락받지 못했다는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부승찬 위원 아니요, 저작사도 확인했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심리단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대북전단에 대한 단속을, P-518(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안 한 이유 국군심리전단

하고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군심리전단장 양현승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수 차례 민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세요.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세요.

○부승찬 위원 민간단체에서 살포하는 대북전단과 똑같은 풍선을 만들어서 국군심리전단에서 북으로 날려 보냈지요? 답변 아까와 같이 똑같이 답변해 주세요.

○국군심리전단장 양현승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됐습니다.

드론사령관님!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부승찬 위원 평양에 떨어진, 평양으로 날려 보낸 S-BAT은 2km에서 소음이 들리는, 기술점검평가에서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크게 들리는 그래서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한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무인기 갖고 계시지요, 보유하고 계시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S-BAT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무인기 ADD에서 받은 거 있지요, 86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그겁니다.

○부승찬 위원 갖고 계시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예.

○부승찬 위원 그래서 4대가 손·망실됐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최초에 여러 대가 손·망실됐습니다.

○부승찬 위원 4대, 이 무인기는 국방 예산입니까? 정보 예산입니까?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 예산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국방 예산이에요. 그래서 답변할 의무가 있어요.

4대가 손·망실됐어요. 82대 보유하고 있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답을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아니, 82대 보유하고 있냐고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대수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부승찬 위원 사령관, 자료는 보내고 왜 그러세요?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드론사령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분 더 주세요.

드론사령부에서……

○위원장 성일종 5분 드렸어요, 감사님.

○부승찬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중 1분 드리세요.

마무리하십시오.

○부승찬 위원 드론사령부에서 온 ‘4대 망실, 1대는 아직 국방부 심의가 안 끝나서 군수 망실 처리 안 됐고 86대에서 4대 손실 그래서 82대 보유’ 이게 답변 자료에 있다니까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에도 계속 훈련하기 때문에……

○부승찬 위원 잠깐만요. 평양에 무인기 보냈지요?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렇지요. 그 답변이 나오셔야 돼요. 추락했는데 우리 아 측 지역에 추락해서 뼈라통이랑 트럭을 동원해서 수거한 적 있지요? 그때 뼈라통도 있었습니다.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그것 또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승찬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요 적과 교전 상태를 초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답변 못하실 거예요. 나중에 다 책임지십시오.

○위원장 성일중 부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정보사령관,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HID가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한 30여 명 대기했다 그랬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특수 인원은 5명이 포함돼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총 30여 명이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 대기하고 있는 나머지 한 23명은 어떤 부류의……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냥 저희 사령부 소속의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입니다.

○김병주 위원 어떤 능력을 가진 부대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 내용은 좀 제한됩니다, 말씀드리기가.

○김병주 위원 그러면 30명 모두 그다음 날 선관위로 가려고 했나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일단 지시받은 임무는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아침에 내가 20명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왜 부인을 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 20명이라는 장소를 위원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병주 위원 판교 모처에 있다 그랬잖아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규모가 사실 다른……

○김병주 위원 20명 규모라고 내가 그랬는데.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30명이라고 얘기를 정정을 해야지 전혀, 딱 잡아떼고 말이야. 그리고 이 인원들 올 때 한 4박 5일 정도 짐을 싸서 오라고 했는데 임무 기간을 한 5일로 잡았나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상부에서 지시 받기를 며칠 정도 대기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며칠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며칠이에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며칠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아니, 며칠로 지시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3~4일 정도 제가 지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병주 위원 아까는 또 부인하더니 정보사령관, 왜 그래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아까 위원님께……

○김병주 위원 오전에 내가 이런 질문했을 때 다 부인하더니 지금은 또 인정하고.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제대로 답변하실 기회를 안 주셨고 그때는 팩트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임무가 있었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다른 임무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입된 10명이 임무를 수행했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그 인원들이 대기 상태를 유지하다가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여기에는 지휘했던 인원이 도청부대 지휘관도 있었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임무는 저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거 비밀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임무를 수행한 것 같아요. 도청 임무를 그다음 날 9시까지 했나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임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제가 새벽 5시 30분경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다 복귀를 시켰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다음에 정보사에서는 점조직으로 한 35명 규모의 소령, 중령, 영관급들을 결사대처럼 사조직으로 구성을 했던 정황들이 있어요. 알고 있나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모르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검찰단장, 조사할 때 이것도 조사하세요. 거기 전 예비역 노상원인가 그 장군을 비롯해서 현역 점조직으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령관도 정보본부장 상급자를 경유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고 또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밑에 정상적인 계통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지난번에 블랙요원 유출이 돼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도 지금 또 이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관여했어요? 인원 선발 언제 했나요, 10월 30일 날 했지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사이드에 있는 5명 추천하라 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그런 사실 없고……

○김병주 위원 그러면 언제 인원을……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일 날 점심 때쯤에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오후 16시경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이미 30일 날 했고 그러면 5명은 어디어디서 왔어요?

○국군정보사령관 문상호 특수부대에서 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치 어디어디, 대전에서도 2명 오고 속초에서도 3명 온 거 아니에요? 그 부대 교육가 있는 4명 해서 구체적으로 다 있는데 그렇게 속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정보사는 이상하게 예비역들과 결부돼서 점조직으로 모든 게 움직이고 있어요.

장관대행, 확실히 뿌리 뽑으세요.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확인해 보고.

완전히 지난번에 블랙요원 했을 때도 문제가 돼서 계속 문제 제기했는데 왜 이거 발본색원 못 하는 거야?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내란에 가입을 하고.

작전본부장!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작전본부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한 토의는 했었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저희는 2011년부터 신속, 정확, 충분 대응 그 내용에 기초해서 항상 도발 원점, 지원지휘세력까지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오물풍선 원점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토의했어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오물풍선은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토의를 해 왔습니다.

○김병주 위원 원점 사격?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것은 하나의 대상일 뿐입니다. 상황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이루어지게 되지요.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장관이 왔을 때 더 심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전 장관께서 지통실에서 봤을 때는 11월 18일이었는데 그때는 전체적으로 태세 점검만 하고 끝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한 태세 점검이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아닙니다. 그때는 경고 사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점검을 하고 끝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디에 대한 경고 사격?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저희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사격 준비는 되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끝났습니다.

○김병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분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남았어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지금 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오물풍선 원점 타격에 대해서는 실제 최초로 얘기하신 분이 여기 성일종 위원장님이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세요. 누구로부터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듣고 해서, 지금 언론에 상당히 떠들썩해서 제가 이거는 아주 적의 도발을 유도하는 거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은 아마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맞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살상무기가 있거나 비인도적인 무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국민에 피해가 왔었을 때는 우리가 원점 타격도,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 이 방침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국민이 비인도적인 무기, 세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있었고 그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끝나셨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6분 하셨지요?

○강대식 위원 5분.

○위원장 성일종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박범계 위원님 순서가 아니고요, 강대식 위원님이 먼저 있는데……

○박범계 위원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가셨다고……

○강대식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성일종 먼저 하십시오.

○박범계 위원 꼭 사령관님, 앞으로 좀……

정리 좀 해 봅시다.

12월 1일 날 6개 소를 정해서 ‘이것이 계엄인 거구나. 그러나 이대로 정말 실행할까?’ 여기까지 정리가 됐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리고 휘하 여단장들에게는 불법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알려주지 않았고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12월 3일 날 이제 작전이 개시가 됐습니다. 김용현 장관과 많은 전화 통화가 있었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한 번도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불응을 하거나 이의를 단 적이 없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실시간에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더 나갔습니다. ‘문을 깨부수고’ 맞지요? 윤석열 대통령의 위당이 그렇습니다. 제가 동기예요, 동기. 제가 장관할 때 총장 하셨잖아요. 말이 거칠잖아요. ‘문을 깨부수고’ 이렇게 하잖아요.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박종근 예.

○박범계 위원 그 뒤에 계엄 해제될 때까지 장관의 지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중간에 제가 병력 철수하기 전에 한번 통화를 해서……

○박범계 위원 본인이 전화했었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제가 먼저 했는지 전화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잘, 헛갈리는데 통화를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가 이 작전과 관련해서 소위 라스트 오더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박범계 위원 계엄 해제 전 라스트 오더 맞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렇습니다. 해제 전이었습시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수괴라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이 방금 전 구속된 거 아세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확인 못 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영장 실질심사도 없이 구속됐습시다. 그리고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공모 관계로 적시가 됐습시다. 귀하의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아, 하나 더요. 처음에는 김용현 장관이 지시한 대로 또는 첫 번째 대통령의 첫 번째 오더, 첫 번째 전화대로 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그랬습시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로 1공수여단장한테도 얘기하고 707특임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박범계 위원 그것이 1공수여단장이 증언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같은 맥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행을 하려고 했습시다.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박범계 위원 끌어내려고도 했습시다.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첫 번째 방법을 하기 위해서 현장 지휘관들과고 논의를 했던 겁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지요?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대통령의 두 번째 라스트 오더를 받고 나서는 이건 아니다, 참모들과 상의도 했고 이렇게 되면 유혈 사태가 나고 살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아까 저하고 오랜 대화를 했고 오늘 증언하듯이, 맞습니까?

○(전)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예, 그렇습시다.

○박범계 위원 들어가십시오.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예.

○박범계 위원 앞으로 나오세요. 시간 정지해 주시고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입니다.

○박범계 위원 법무관이지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예.

○박범계 위원 몇 기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육사 60기입니다.

○박범계 위원 육사인테 법무관이 어떻게……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위탁교육으로 교육받고 변호사시험 합격했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1처장의 중앙선관위 관련된 지시를 받고서 신문에도 나고 오늘 얘기도 있었지만, 실장 포함해서 법무관이 몇 명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7명입니다.

○박범계 위원 반대했지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예.

○박범계 위원 이유가 뭐지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박범계 위원 합수단이 구성 안 됐지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예, 합수단 구성까지는 제가 잘 모르던 부분이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왜 몰라요? 1979년 비상계엄 때 계엄 공고로—지금은 포고령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합수단 구성이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합수단의 단장을 대통령 혹은 국방부장관이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추천을 받아서.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맞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런 절차가 없었지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지금 합수단의 이름으로 가서, 수사 목적으로 중앙선관위에 가서 영장 없이 서버의 내용들을 압수한다든지 사람을 체포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지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예, 그것은 맞지만 당시 논의했던 것은 합수단이 설치되고가 아니고 주요 논의·논점은 서버 전체를 가지고 와서 압수가 가능한가의 문제였고 그런 것은 안 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포고령 위반 행위, 그러니까 위반을 한 행위도 아닌데 포고령 전의 행위를……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박범계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1분.

○위원장 성일종 그냥 하시지요, 그러면.

○박범계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위원장 성일종 그러시지요. 1분 더 쓰시지요.

○박범계 위원 마저 하세요, 짧게.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그래서 포고령 발령 전 행위를 이유로 압수 등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압수 절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정식적인 입건 등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면 하는 것이 주요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위법한 수집 증거가 됨은 물론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인원들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박범계 위원 귀관들의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직언에 대해서 경의를 포함합니다.

하나 더, 영을 바꿔서 방첩사의 지원 업무에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 조항 등을 신설했고 사이버 등에 대한 업무를 새로 포함시켰지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방첩사령부령 개정 말씀이십니까?

○박범계 위원 예.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그것 제가 전입 오기 전 일이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1처장!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박범계 위원 맞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장 성일종 장관님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박범계 위원 그런 개정한 적 있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그 사항은,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범계 위원 추가질의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원장 성일종 그렇게 쓰시고서 또 추가질의를 하시면……

○박범계 위원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저 마무리하세요.

○박범계 위원 법무실장, 오기 전 일이라도 국군 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입니다—이걸 개정했잖아요. 그렇지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사이버 지원에 대한 업무를 새로 포함시켰잖아요?

○국군방첩사령부법무실장 윤비나 세부적인 내용은 정확히……

○박범계 위원 맞습니다.

대통령이 올해 초, 3월 22일 날 국군방첩사령부 방문했지요? 1처장, 그렇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셔서 무슨 말 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위원님, 오신 시기는 작년 23년 2·3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거기서 부정선거 얘기했지요?

○국군방첩사령부1처장 정성우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박범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지금 뒤에 앉아 계신 관계관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엄중한

시기이고 여러분들이 국민들 앞에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앉아 계시는데 웃음을 띠는 관계관들이나 오락을 한다든지 자세가 굉장히 좀 불손하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엄중한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바람을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수의 군인들이 심각한 내적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겪고 있고 많은 자괴감에 빠졌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어제부터 이른 새벽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성실하게 복무도 하고 또 부당한 지시를 따르거나 거부한 초·중급 간부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국방부는 우리 안보 공백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정말로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를 하고 또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차제에 군 기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속히 재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 위원님, 추가질의 말씀하셨지요?

○허영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1분 쓰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이승오 본부장님, 아까 제가 11월 18일 날 통제소에 가서 경고사격이나 원점 타격 얘기를 했는데 ‘안 했다’고 그랬는데, “경고사격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제 발언에는 안 했다 그리고 또 하셨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11월 18일 통제소에서 ‘경고사격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발언을 한 거 맞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게 11월 18일은 전 장관께서 방문한 날이고 28일 날은 오지 않았습시다.

○허영 위원 그런데 18일 날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8일이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28일은 안 오신 날입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화한 날.

○허영 위원 28일은 안 날이고, 제가 얘기한 건 28일 날 그날 회의를 하던 중에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으신 거잖아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그때는 회의가 아니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투 통제실에서 의장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시다.

○허영 위원 그런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지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때 경고 사격, 원점 타격 말고 경고 사격을 안 한 것에 대한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질타받지 않았습시다.

○허영 위원 우리 이승오 작전본부장이 질타받고 욕을 먹고 뉘두리 푸념을 했다고

하는 제보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질타받지 않았습니다.

○허영 위원 이승오 본부장, 이게 왜냐하면 북의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해서 당초 군의 대응 원칙을 넘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과한 대응 이게 내란죄를 넘어서 외환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여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을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고 기존에 저희들의……

○허영 위원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당초 군의 대응 원칙을 넘어서 과한 대응을 지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더라는 느낌은 받지 못하셨습니까?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상황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의 대응 수준은 결정이 됩니다. 그 수준에 대해서 상황 평가를 할 때 정량적·정성적 판단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1분 더 드리십시오.

○허영 위원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의 지시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토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런 기준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왜 꾸밈을 하셨어요, 질타를 받고?

○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 이승오 어떤 제보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영 위원 나승민 대령 나와 있나요?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예, 신원보안실장입니다.

○허영 위원 나승민 대령은 지금 보직과 임기가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왜 연장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저는 나름대로 제가 군 생활 마무리까지, 올해도 휴가 두 번밖에 안 가고 매일 열심히 일했고……

○허영 위원 11월 26일~28일 사이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계엄 문건을 가지고 계엄 모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군방첩사령부신원보안실장 나승민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일 날 장군 인사 발표가 났고 저희들이 장군 인사 관련 여론 등을 수집해서 27일 날 아침에 초안을 보고했고, 28일 오후에 한 5분 정도 수정본을 보고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해 주세요.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규백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성일종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안규백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안규백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제가 강대식 위원님이 한 그 발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오늘 공군 소장 뒤에 누구 왔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한 사람 누구입니까? 해외정보부장?

○국방정보본부해외정보부장 최춘송 예, 해외정보부장입니다.

○안규백 위원 당신 정신이 있어요? 지금 45년 만에, 아무리 정회간이라도 그렇지 45년 만에 계엄이 있어 가지고 나라가 난리이고 장관이 구속되고 대통령이 내란수괴죄로 지금 구속될 직면에 있는데…… 누구야!

위원장님, 저이는 밖으로 퇴출시키세요.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고 또 이 국감장은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곳입니다.

○안규백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차관, 이것 보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게 지금 군의 현실입니까?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제가 가서 정확히 진상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 묻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예.

○위원장 성일종 정회 시간에, 개인 시간이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상황이 지금……

○위원장 성일종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았음을 안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아까 원점 타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민일보에 7월 14일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방위원장이 되니까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제목이 “성일종 ‘북 오물풍선 13곳 파악, 원점타격 방침’” 이렇게 쓰니까 아마 이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 보시면 ‘우리 군은 북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인적 피해가 발생하고 생화학무기나 치명적인 반인륜적 행위가 생긴다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을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부양 원점 황해도 지역 13곳을 이미 파악한 상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북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우리 국가에 위해가 되는 반인륜적인 생화학무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피해가 발생하면 저는 바로 우리 군은 즉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뒤에 배석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59분 산회)

#### ○출석 위원(11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유용원 임종득 추미애  
허영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관직무대행 김선호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기획관리관 김경욱  
법무관리관 홍창식  
군사보좌관 김철진  
대변인 전하규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장 최춘송

국군정보사령부

사령관 문상호

국군의무사령부

사령관 하범만

국방부조사본부

본부장 박헌수

민원조사단장 편강철

국방부검찰단

단장 김동혁

국방정신전력원

연구부장 박성훈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직무대리 이정민

1처장 정성우

2처장 임삼묵

수사단장 김대우

비서실장 이창엽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신원보안실장 나승민  
국방부방첩부대장 장상주  
육군본부방첩부대장 윤남현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과학수사센터장 송제영  
정보보호단장 박태주  
군사보안실장 이종훈  
사이버보안실장 유재원  
법무실장 윤비나  
경호경비부대장 양승철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진팔  
정보본부장 원천희  
작전본부장 이승오  
지휘통신부장 이재승  
민군작전부장 허태선  
계엄과장 권영환  
국군심리전단  
단장 양현승  
사이버작전사령부  
사령관 조원희  
드론작전사령부  
사령관 김용대  
정작처장 이제승  
육군본부  
참모총장 박안수  
육군사관학교  
교장 소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전)사령관 곽종근  
사령관직무대리 박성제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전)사령관 이진우  
제1경비단장 조성현  
군사경찰단장 김창학